



## 12월 11일(수) 14:30 이후 사용

비고	* 12.11. 14:30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관계부처 합동 백브리핑 # 공동배포 : 외교부, 국방부, 환경부, 국토부	
담당	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지역협력팀	과장 정만호, 중령 이헌희 (044-200-2585, 2586)
	외교부 한미지위협정과	과장 김연식, 서기관 박지은 (02-2100-7843, 7841)
	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	과장 김순자, 사무관 이승희 (02-748-5890, 5875)
	환경부 토양지하수과	과장 홍경진, 사무관 정지민 (044-201-7170, 7174)
	국토부 공원정책과	과장 신보미, 사무관 김민정 (02-2131-2030, 2036)

## 원주·부평·동두천 4개 폐쇄 미군기지, 주민 품으로 돌아온다 - 용산기지 반환도 본격 개시하기로... -

- ▶ 한·미 SOFA 합동위, ①오염정화 책임, ②사용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, ③SOFA 관련 문서 개정에 대해 지속 협의하는 조건으로 4개 폐쇄 미군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
- ▶ 용산공원의 차질 없는 조성을 위해 용산기지 반환절차 본격적으로 시작
- ▶ 한세기여만에 제 모습 찾아가는 용산, 반환절차의 첫발 내딛는다.

□ 정부는 12월 11일(수) 오후,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(이하 합동위)를 개최하고 장기간 반환이 지연되어온 4개 폐쇄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는 한편, 용산기지의 반환 협의 절차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.

\* 원주(캠프이글/09.3월 폐쇄, 캠프 룡/10.6월 폐쇄), 부평(캠프마켓/11.7월 폐쇄), 동두천(캠프호비 쉐아사격장/11.10월 폐쇄)

- 한·미 양측은 ①「△오염정화 책임, △주한미군이 현재 사용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, △韓측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한미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하에 4개 기지 즉시 반환」에 합의하고, 아울러 ②「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 개시」에도 합의했습니다.

- 이번에 반환되는 4개 기지는 2010년(퉁, 이글, 호비 웨아 사격장)과 2011년(마켓)부터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를 진행했으나, **오염 정화 기준 및 정화 책임에 대한 美측과의 이견**으로 오랫동안 반환이 지연돼왔습니다.
  -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·미 양측은 2019년 초부터 환경·법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**합동실무단(JWG, Joint Working Group)**을 운영했으나,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.
  
- 이에 반환 지연에 따른 **오염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**로 경제적·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**조기 반환 요청**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 등을 고려하여, 정부는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8월 30일 이들 4개 기지의 조기 반환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.
  -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(외교부, 국방부, 환경부)가 참여하는 **범정부TF**를 구성하여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입장 조율을 거쳐 **美측과 SOFA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** 왔습니다.
  - 다만, 美측과의 오염책임 문제 관련 협의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온 반면, 기지 반환 문제는 보다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여서, 우리측은 이번 SOFA 합동위에서 앞으로 미측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**4개 기지의 즉시 반환에 합의**했습니다.
  
- 기존에는 한·미간 정화책임 관련 협이가 장기간 공전하여 기지 반환 자체가 지연됨에 따라, 美측과 정화책임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SOFA 관련 협의를 종결하였다면,
  - 이번에는 美측의 정화책임과 환경문제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의 문(門)을 계속 열어놓고 기지를 반환받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

- 앞으로 정부는 美측과 협의를 계속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.
- 한편, 이번 합동위에서 한·미 양측은 '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 개시'에도 합의했습니다.
  - 정부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미 이전한 상황에서 2005년에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SOFA 반환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.
  - 앞으로 반환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경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.
- 용산기지 반환절차의 첫발을 내딛는 이번 합의는 용산이 과거 외국군대 주둔지로서의 시대를 마감하고,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
  - 용산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주요 전쟁기에는 외국군대가 주둔하였고,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군의 핵심거점으로 이용됐던 지역으로서, 용산기지의 반환은 이 지역에서 한세기여만에 우리의 역사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.
  - 아울러 광복 이후에는 용산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이곳에서 한미동맹의 역사가 시작됐는데, 이제 용산시대를 넘어 평택시대의 개막으로 한미동맹이 새로운 시대로 발전해 나가는 상징성도 담고 있습니다.
- 정부는 이번에 반환절차를 개시한 용산기지를 포함하여 미군의 이전으로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인 나머지 기지들도 미측과의 환경문제 관련 협의 진전 동향 등을 종합 감안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.

## [붙임. 용산기지의 역사]

- ▲(고려시대) 13세기 말, 몽골군(元) 침략 시 용산에 일본정벌을 위한 병참기지 설치  
→ 최초의 외국군 주둔
- ▲(1592년) 임진왜란 초기 왜군은 용산에 후방 병참기지 조성
- ▲(1882년) 임오군란 시 용산기지 북부(現캠프 코너)에 청나라군 지휘소 설치  
→ 同 시기부터 외국군대가 용산에 상주
- ▲(1894년) 청일전쟁 발생 후 일본군 8천여명 용산 상륙, 조선 진출의 전초기지로 활용
- ▲(1899~1918년) 일본은 일본의 용산에 대륙진출의 발판 마련(철도 건설) 및 군사  
기지(사령부 건설) 구축을 통한 한반도 식민지화 본격 시행
- ▲(~1945년) 용산은 대륙침략을 위한 동원기지로 변화, 1938년부터 시작된 조선  
청년 강제징용의 입영장소로도 사용
- ▲(1945~1949년) 미군정 시기 美7사단 주둔하여 3년여 사용
- ▲(1949년) 대한민국 정부 수립('48년) 후 국방부와 육군본부 용산으로 이전했으나,  
6·25전쟁 발발로 용산에 한국군 단독으로 주둔활동한 것은 1년 미만에 불과
- ▲(1950~1953년) 한국전쟁 기간 미군은 용산기지 재건 개시하자 '52년 정부가 미군  
에 공여, 정전협정 후 '53년 9월 美 8군사령부가 용산으로 이전
- ▲(1957년) '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미군 주둔의 법적근거 마련, '57년 유엔군  
사령부 이전(←도쿄) 및 주한미군사령부 창설('67년 SOFA 체결), '78년 연합사령부 창설
- ▲(1987년~) 전·평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함께 용산기지 이전 논의 시작
  - \* '87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후보는 '작전통제권 환수 및 용산기지 이전'을 공약으로 제시
- ▲(2003년~) △'03년 한미 정상간 용산기지 이전 합의 △'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(YRP)  
체결 △'05년 용산국가공원 조성 결정 △'07년 「용산공원조성 특별법」 제정

※ 출처 : '군사적 관점에서 본 용산 기지의 역사'(한미연합군사령부)